

‘지방선거 쓰레기’ 폐현수막, 가방·지갑 등으로 재활용

서울시, 소재화 작업 거쳐 제공
폐현수막 재활용률 10% 못 미쳐
상시 회수·소재화 시스템 마련 예정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서울 곳곳에 내걸렸던 폐현수막이 가방, 지갑, 파우치 같은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재활용플라자와 6·1 지방선거 폐현수막을 디자인 제품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자치구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서울재활용플라자로 운송한다. 서울재활용플라자는 폐현수막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소재화’ 작업을 거쳐 해당 자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재활용기업에 제공한다. 재활용기업은 폐현수막으로 가방, 지갑, 파우치 등을 제작해 판매한다.



재활용 제품. /서울시

이번 사업에는 시가 사전에 실시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11개 구에서 수거한 4000여장의 폐현수막이 사용될 예정이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

어져 소각해 처리할 경우 온실가스, 발암물질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때문에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이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폐현수막은 각 자치구별로 수거·처리되고 있는데 보관창고 부재, 재활용 비용 문제로 장바구니, 마대, 수방용·제설 대책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재활용 방법이 한정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3월 치러진 대선 이후 폐현수막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 정도가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재활용률은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지방선거 후 약 1만7000~2만장의 폐현수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게로 환산하면 최대 12t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재활용기업과 디자인단체, 자치구, 녹색발전소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화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뿐 아니라 평상시 수거하는 폐현수막도 디자인 제품 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재활용플라자’를 통한 상시 회수·소재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공에서 재활용품 수거마대, 자연재해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수막에 사용되는 소재는 중국산 PP마대보다 3배 이상 견고하고 오염물질 누수방지에 강하며 물이 닿으면 무거워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

활용품 수거 마대나 모래주머니로 활용했을 때 탁월하다는 게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폐현수막을 건축자재로 활용해 남산도서관에 친환경 야외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금천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이용해 목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섬유패널을 제작, 벤치나 선반 등을 만드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19일 한국환경공단, 롯데홈쇼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원순환 및 사회가치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이 어떻게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학습지원

만 3세서 초등학생까지 총 150명
자격증 보유 전문교사 선발·파견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만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총 150명을 지원한다. 우리말을 잘 못하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아동에게는 한글 수업을, 그외

탈북아동과 남한 출생 아동에게는 국어와 독서 코칭 수업을 제공한다.

탈북민 가정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과 부모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자녀에게는 정서 멘토링을, 부모에게는 학습상담과 교육정보를 제공해 정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심리·상담, 놀이·미술 치료분야

등에서 자격증이 있는 전문교사를 선발해 탈북민 가정에 파견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1회 50분이며, 주 1회 운영된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대교드림 멘토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은평구 진관동 일대 사방댐 시공 현장. /서울시

서울시, 우기 전 ‘산사태 예방사업’ 총력

서울시는 6월 우기 전까지 산사태 취약 지역 84곳에 사방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과도한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한 적정 규모의 사방 사업을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야생동물이 통행할 수 있는 투과형 사방구조물을 설치해 생태환경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림재해 방지가 시급한 부분만 사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사 설명회를 열어 사방사업의 내용, 규모, 공사의 당위성 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현장 점검, 응급조치 등을 수행하는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가동 중이다. /김현정 기자

“전기버스도 무선 충전” 서울시 시범적용

연내 인프라 구축... 내년 운영

서울시는 전기버스 2개 노선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남산순환버스(01번)와 올 하반기 운행될 예정인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그 대상이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정류장이나 도로 바닥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면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한 차량이 근처에 정차시 공진주파수를 통해 충전되는 방식이다. 시는 연내 충전장치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선충전과 달리 차량에 무거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별도 충전기를 조작할 필요 없이 주·정차만 하면 충전돼 간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가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무선충전 기술은 정



남산순환버스 무선충전기 설치 장소. /서울시

류장이나 차고지에 무선충전기를 매설하고 85kHz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충전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정차했을 때 충전되는 방식이다.

시는 청계광장 정류소와 남산서울타워 정류소 및 차고지 바닥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충전용량은 각각 20kWh, 150kWh이며, 6분 충전으로 6km, 21km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자율주행차, 나눔카, 전기버스 등에 무선 충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자전거 지도 배부

경기 고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지도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달 중 배부될 예정인 자전거 지도는 지난 1월 배부했던 지도에 현장 상황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고양시 자전거길 16코스에 대한 상세 지도와 관광지를 소개하고 후면에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법 등을 담고 있다.

지도에는 시민이 자주 찾는 자전거길로 진입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하고 사진을 첨부해 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 지도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광정보센터, 구청 민원실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인터넷상으로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생활정보(교통→대중교통안내→자전거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2

6월 8일 (수)
음력 : 5월 10일

수도권 날씨
15~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3/25, 동두천 13/26, 가평 11/24, 양평 14/24, 용인 16/24, 수원 16/24, 인천 16/23, 평택 14/25, 파주 12/24, 서울 15/26, 백령도 15/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휘발유값 또 사상 최고...“10개주 이미 5달러 넘어” /사진 뉴시스
▲불린컸 “리, 우크라 곡물 훔쳐 아프리카에 판매 시도”

▲‘파티게이트’ 존슨 英 총리, 신임투표서 불안한 승리
▲젤렌스키 “세베로도네츠크 포기 없다...러 협상 ‘제로’ 수준”



▲“미국, 한반도 긴장 고조시킨 주범...중국,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마리우폴, 시신 등에 도시 오염...콜레라 유행” /사진 뉴시스